

## 2. 문항별 문항카드

### 문항카드 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1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고향, 상실감, 그리움, 향수
예상 소요 시간	45분/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문제 1 ]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의 인물들이 고향에 부여했던 의미와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된 원인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 제시문 ]

<p>(가)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홍, 고향에서 오누마.”</p> <p>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동척)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 것이 생겨나서 저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엽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p> <p>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중략]</p> <p>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떠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p> <p>“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p> <p>나는 탄식하였다.</p> <p>“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p> <p>“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썩 변했겠지요.”</p>
---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았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준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 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뿔뿔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짓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뚫뚫히 본 듯싶었다.

(나)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세모(한 해가 끝날 무렵)가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을 놓고 으레건 꾸중이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 마음 한 편이 걸리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이러 매 신경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찌랴 하며 견뎌 버렸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아주 어려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야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조상의 넋을 기념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의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한내음에 닿았을 때는 이미 세 시도 겨워 머잖아 해거름을 만나게 될 그런 어름이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난생처음인데다 정 두고 떠났던 옛 산천들이 돌아보이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가슴을 부접할 길이 없었다.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 무늬가 잦아 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재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 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었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외양간만 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 가게 굴뚝만이 꼴불견으로 뻗어 서서 있던 것이다.

그 왕소나무 잎새에 누렁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가 끼는 걸 보며 고향을 뜨고 십삼 년 만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언제 베어다 쪼갠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에서 부레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사백여 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다 부대껴 내고도 어느 술보다 푸르던, 십장생의 으뜸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 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일곱 살 나 천자문을 떼고 책씻이도 마친 어느 여름 날 해설핀 석양으로 잊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갯가 제방 독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 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이젠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나는 은연중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왕소나무)이 세상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졌으랴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해 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 소리가

잘 틈 없던 철로 가에 서서, 그 술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 영물의 예우도 내던지고 고사해 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 이랬자 무덤들밖에 남겨 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 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험험(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다) 우리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나는 백인 마을에서 자랐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또래 녀석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곧잘 물었다.

“웨어 아 유 프롬(Where are you from)?”

내 대답은 늘 똑같았다. “루이지애나, 내 고향은 루이지애나예요.”

물론 그건 사람들이 예상한 답변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냐. 중국이나 일본 어디서 왔느냐는 말이지.”

그 두 나라 사이에 낀 반도국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았다.

일곱 살 때 나는 처음 한국에 가 보았다. 가방은 무거웠고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없었다. 순진하게도 나는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믿었다.

어디를 가도 검은 머리였다. 쌍꺼풀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느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아시아인’은 없었다. 사람들은 내게 “눈이 크다”거나 “작고 말랐다”라고 말했다. 겨우 두 달 동안이었지만 한국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몇 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고 기억하게 해 주었다.

내가 다시 한국에 간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둔 여름이었다. 나는 금세 사람들이 예전만큼 내게 관대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부모님은 화가 나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버릇없게 굴었기 때문이다. 너무 솔직한 질문과 서양식 사고방식이 친척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삼촌께 나한테 화가 나셨느냐고 여쭙었다.

삼촌은 “아니다. 너한테 화가 난 건 아니야. 단지 널 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분명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국말로 미국 애들 생각을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니까. 넌 한국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미국인이지.”라고 답하셨다.

충격이었다. 미국에 있을 때처럼 한국에서도 나는 이방인이었다.

(라)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사방의 둘레)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 . . . .”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 . . . .”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중략]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었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 . . . .”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불도저)를 끄는데 . . . . .”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 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뭇 뺨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 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고향이란 맥락 속에서 꼼꼼하게 읽어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내재된 고향의 가치와 의미(그리움의 대상, 전통과 추억, 평화와 행복, 소속감, 마음의 안식처 등)와, 이들이 이러한 고향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원인(난개발과 상업화로 인해 변화된 퇴락한 고향의 모습, 외세 침략으로 인해 황폐화된 조국을 목도하고 느끼는 망국의 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정체성 혼란이 초래한 이방인이란 자각 등)을 찾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6호]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성취 기준 1	<p>[문학의 수용과 생산]</p> <p>(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p> <p>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높이도록 한다. (135쪽)</p>
	성취 기준 2	<p>[문학의 수용과 생산]</p> <p>(4) 문학이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p> <p>문학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언어로써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은 인간 문제에 대한 사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시대적·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사회 분야와도 관련을 맺는다. 인간의 생활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문학은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문학이 다른 분야와 맺는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생산 활동을 심화하도록 한다. (136쪽)</p>
	성취 기준 3	<p>[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p> <p>(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작품은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시대 상황은 작가가 처한 시대의 한계로 말미암아 저절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작가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각시킨 것도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각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의식, 인물, 배경, 표현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 배경을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7쪽)</p>
성취 기준 4	<p>[문학과 삶]</p> <p>(14)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p> <p>인간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되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환경 문제, 다문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학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타인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139쪽)</p>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6) 평화와 윤리 (가)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우리 민족의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민족공동체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민족관 및 통일관을 함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인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① 지구촌 시대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 ④ 재외 동포의 문제와 한민족 네트워크 (42쪽)	문항 1,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6	56-60		○(중략)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6	289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2017	24-252		○(중략)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이주영 외	EBS	2018	174-176	제시문 (가)	○(중략)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EBS, 2018)에 실린 현진건의 소설 「고향(故鄕)」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텍스트는 일제 치하 동양척식회사의 횡포로 극도의 생활고를 겪게 된 등장인물이 간도로 이주하였다가 오랜만에 다시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느끼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묘사한 부분이다.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린 고향의 처참한 모습을 목도하고 느끼는 비탄감이 당시 일제 치하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6)에 이문구의 소설 「관촌수필」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신정 즈음 고향을 찾은 주인공이 느끼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구수한 사투리로 세세하게 묘사한 글이다. 모처럼 고향을 방문한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추억이 서려있는 왕소나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고향의 전통과 옛모습이 상업적 난개발로 인하여 사라져버린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몰락한 고향의 타락을 자각한다. 이러한 자각은 중국적으로 처연한 공허함으로 가득 찬 실향민 의식으로 귀결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2016)에 실린 「재외 동포가 느끼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전문이다. 이 글의 화자는 이민 2세대로 미국에서 태어나 백인과 다른 외모로 인해 혼란을 느낀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향에 대한 갈망을 채우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어릴 때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에서는 동질성을 느꼈지만, 성장한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는 미국에서 살면서 체화되고 내재화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향이라고 느꼈던 한국 역시 자신이 소속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론적으로 화자는 한국, 미국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정체성 혼란에 빠지는 충격에 휩싸인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교학사, 2017)에 실린 황석영의 소설 「삼포로 가는 길」의 일부이다. 이 소설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뜨내기 신세를 청산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이다. 제시된 내용은 ‘정씨’가 출옥 후 10년 만에 고향 삼포로 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정씨에게 출옥 후 돌아갈 곳은 고향 삼포밖에 없다. 그러나 정씨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바로 직전 고향이 간척지로 급변하여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자신이 마음의 정처로 여겨온 삼포라는 고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95 1688 1187 1827"> <thead> <tr> <th>위반 글자 수</th> <th>감점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25자</td> <td>1점 감점</td> </tr> <tr> <td>±26자 이상</td> <td>2점 감점</td> </tr> </tbody> </table> <p>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p> <p>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p>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4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고향에 부여했던 '의미'와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의미: 생활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심중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 (4점)

원인: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목도함. (4점)

의미: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 추억이 깃든 공간. (4점)

원인: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난개발된 모습에서 고향이 타락했다는 깨달음. (4점)

의미: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4점)

원인: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음. (4점)

의미: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착지. (4점)

원인: 상업적 개발로 인해 급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실함. (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의미와 원인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의미와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의미와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의미와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고향에 부여했던 의미와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된 원인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예)

서론: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결론: 고향은 평화, 행복, 전통,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상업화, 산업화, 외세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7. 예시 답안**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에서 고향은 생활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본 후 슬퍼하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나)에서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러나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난개발된 모습에서 고향이 타락했다는 깨달음이 상실감의 원인이 되었다. (다)에서 고향은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방인임을 자각한다. (라)의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착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개발로 인해 급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

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은 평화와 행복, 전통과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상업화, 산업화, 외세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566자)

## 문항카드 2

###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고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고향, 귀향, 내적 공간, 존재의 근거, 집
예상 소요 시간	45분/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정씨와 제시문 (마)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생각이 다른 이유를 서술하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의 고갱의 사례를 토대로 제시해 보시오. **[40점, 550~570자]**

**[ 제시문 ]**

(라)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돌보였고, 사위(사방의 들레)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 . . . .”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어디루 가려요?”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 . . . .”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중략]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들었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 . . . .”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불도저)를 끄는데 . . . . .”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 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력이 수십 대씩 들을 실어 나른다구.”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뭍에 쓰오.”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치를 방금 잃어 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마)**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 지중해를 표류하게 된다. 고국 이타케 섬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는데, 그는 여전히 여신 칼립소의 섬에 억류당한 상태다.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으로 칼립소의 섬을 떠나 파리아케스 섬의 알키노오스 왕의 궁전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랑에 휩쓸리고, 괴물과 마녀를 만나는 등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잃게 된 사정을 이야기한다.

먼저 내 이름을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대들도 내 이름을 알도록,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올시다! 나는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내 명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타케가 내 고향이오. 그곳에는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소.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네리톤 말이오.  
 이타케는 야트막하게 그리고 서쪽으로 맨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이들 다른 섬들은 새벽과 태양을 향해 떨어져 있지요.  
 이타케는 바위투성이의 섬이지만, 젊은이들의 좋은 유모(乳母)지요.  
 나로서는 자기 나라보다 달콤한 것은 달리 아무것도 볼 수 없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는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자신의 속이 빈 동굴들 안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아이아이에 섬의 교활한 키르케도 나를  
 남편으로 삼기를 열망하며, 자신의 궁전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들도 내 가슴속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었소.  
 이렇듯 누군가가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낯선 나라의 풍요한 집에서 산다 해도,  
 고향 땅과 부모보다 더 달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이라오.

자, 나는 그대에게 내가 트로이를 떠났을 때 제우스께서  
내게 지우셨던 고난에 찬 귀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소이다.

(바) 공간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생존 터전이며, 인간의 의식은 공간에 의존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에 상응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자리와 위치와 공간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집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집은 인간다운 삶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은 자신의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는 하나의 중심이다. 곧, 인간은 집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바슐라르는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세계이다.” 라고 하며, 집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 바탕이라고 보았다. 또한, 집은 노동과 노력을 기울이는 외적 공간에서 돌아와서 어머니의 품처럼 휴식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이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말처럼 집의 실존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위기, 즉 본래적 의미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의 상실’ 을 뜻한다.

(사) 고갱은 프랑스 파리에서 증권 거래업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예술가로서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혔지만, 가난한 시절에 만난 고희와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잦은 다툼으로 결국 3개월 만에 고갱은 고희의 곁을 떠났다. 고희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이 결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고희와 헤어진 고갱은 강한 원색이 두드러진 상징주의 미술을 시도해 나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대화된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고향 프랑스를 떠나 홀연히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길을 떠났다. ‘이아 오라나 마리아’ 는 고갱이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으로, 이는 타히티 원주민 말로 ‘나는 마리아를 경배한다.’ 는 뜻이다. 어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두 손을 모아 경배하는 두 여인을 그린 종교적인 그림으로, 고갱은 서양 미술의 대표적 아이콘인 성모 마리아를 재해석하였다. 그림 속의 마리아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타히티 여인이 허리에 두르는 전통 의상을 걸치고 어린 예수를 목말 태우고 있다. 왼쪽에는 노란색 날개를 가진 천사와 타히티 여인들이 서 있다. 이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장면과 같은 전체적인 구도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갱은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표현하고자 그들의 모습을 타히티 원주민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인류의 근원을 타락한 서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인 남태평양 타히티 원주민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과 2) 특정한 사례를 근거로 어떤 상황에 직면한 자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모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의 의미를 공간적 삶의 터전이란 범위를 넘어 존재의 근거이자 내적 공간으로 설명하는 텍스트를 근거로 소설 속 두 인물이 갖는 귀향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비교하는 통합적 응용력을 평가하고, 다문화시대 자신이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제2의 고향’ 에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찾는 대안 제시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6호]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성취 기준 1	<p>[문학의 수용과 생산]</p> <p>(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p> <p>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높이도록 한다. (135쪽)</p>
	성취 기준 2	<p>[문학의 수용과 생산]</p> <p>(4) 문학이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p> <p>문학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언어로써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은 인간 문제에 대한 사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시대적·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사회 분야와도 관련을 맺는다. 인간의 생활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문학은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문학이 다른 분야와 맺는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생산 활동을 심화하도록 한다. (136쪽)</p>
	과목명: 고전	
	성취 기준 1	<p>[고전의 탐구]</p> <p>(6)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가치를 재평가한다.</p> <p>현대 사회에는 정보 통신 기술 문명의 발달, 심각한 환경 파괴 등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급격한 변화는 고전의 선별과 수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어떤 글들이 고전의 반열에 오르고 높이 평가되는지 살피고, 현대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예전에 인정받던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 보도록 한다. (88쪽)</p>
성취 기준 2	<p>[고전에 대한 태도]</p> <p>(12) 고전의 수용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형성한다.</p> <p>고전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나 성찰이 담겨 있다. 고전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전에 담긴 지혜를 삶의 여러 국면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참된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을 읽고 유사한 현실의 사례들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가운데 고전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90쪽)</p>	

<b>2. 도덕과 교육과정</b>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 기준 1	(다) 의식주의 윤리 문제 현대 생활에서 의식주가 가지는 윤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건전한 의식주 생활 및 문화를 정립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의식주를 비롯한 소비문화 전반에 대하여 성찰하고 윤리적 소비에 대하여 토론한다. ③ 주거 문화와 윤리적 문제 (41쪽)
과목명: 윤리와 사상	
성취 기준 1	(나) 개인과 자율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권리와 의무 및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국가 중립성 논의 포함) ③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관용의 중요성과 갈등 해결의 바람직한 방법 (55쪽)

나) 자료 출처

<b>교과서 내</b>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7	245-250		○
고전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6	251-252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7	206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6	256		○
윤리와 사상	박병기 외	지학사	2016	176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교학사, 2017)에 실린 황석영의 소설 「삼포로 가는 길」의 일부이다. 이 소설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뜨내기 신세를 청산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이다. 제시된 내용은 ‘정씨’가 출옥 후 10년 만에 고향 삼포로 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정씨에게 출옥 후 돌아갈 곳은 고향 삼포밖에 없다. 그러나 정씨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바로 직전 고향이 간척지로 급변하여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자신이 마음의 정처로 여겨온 삼포라는 고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고전』(천재교육, 2016) 교과서에 실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일부이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참전 후, 신들의 저주를 받아 지중해를 표류하면서 줄곧 귀향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견지한다. 발췌된 부분은 오디세이아에게 고향이 어떤 의미인지를 묘사해주고 있다. 그에게 고향 이타케는 어떠한 위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삶의 지향점이자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달콤한 보금자리이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육, 2016) 교과서에 실린 「주거 문화와 윤리적 문제」의 일부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2016) 교과서에 실린 「주거의 윤리적 의미」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한 글이다. 제시문은 인간의 삶에 있어 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집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터전이며, 고된 일상의 노동을 끝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존적 의미를 가지는 내적 공간이다. 이러한 실존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집은 더 이상 내적 공간으로서 고향의 의미가 지속되지 못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지학사, 2016) 교과서에 실린 「이아 오라나 마리아」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세계를 추구하고자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고갱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에 타히티 토속 문화를 접목시켜 자신만의 새로운 상징주의 미술을 시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p> <p>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반 글자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점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5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점 감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점 감점</td> </tr> </tbody> </table> <p>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작성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p> <p>2. 내용적 측면(40점)</p> <p>1) 제시문 (바)의 논지를 파악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정씨와 제시문 (마)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대한 생각이 다른 이유를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5점): 3~25점 부여</p> <p>(1) 제시문 (바)의 논지: 공간적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근거이자 내적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                      (2) 제시문 (라)의 정씨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데 대한 생각: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                      (3) 제시문 (마)의 오디세우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데 대한 생각: 고향을 대체 불가능한 삶의 중심이자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내적 공간으로 줄곧 확신                      (4) 이 둘의 생각이 다른 점: 정씨는 고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향을 주저하는 반면 오디세우스는 굳은 귀향의 의지를 표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제시문 (바)의 논지를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3~5점 부여                              -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정씨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대한 생각을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6~8점 부여                              -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대한 생각을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6~8점 부여                              -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귀향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3~4점 부여</p> </div>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4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p>2)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의 고갱의 사례를 토대로 제시했는지를 평가한다(15점): 2~15점</p> <p>(1) 제시문 (사)에 나타난 고갱의 사례: 고갱은 자신의 꿈인 상징주의 미술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서양의 도상을 근간으로 하되, 타히티 원주민의 모습을 통해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서양 미술을 재해석함</p> <p>(2)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은 대안을 찾아 타지로 떠나는 적극적인 자세와 기존의 표현 방식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 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타지로 떠나고, 자신이 유지하던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유연하게 융합하는 태도 역시 같은 점수 부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제시문 (사)의 고갱의 사례를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4~7점 부여</p> <p>-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를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5~8점 부여</p> </div> <p>*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p>
--	--

## 7. 예시 답안

(라)의 정씨는 정착하려던 고향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망설이고 있다면 (마)의 오디세우스는 귀환을 방해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향을 지향한다. 집을 인간 존재의 근거이자 실존적 의미가 부여되는 내적 공간으로 설명하는 (바)에 근거할 때, 귀향에 대한 둘의 생각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 정씨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향을 주저한다면,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대체 불가능한 삶의 중심이자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내적 공간으로 줄곧 확신했기 때문에 굳은 귀향의 의지를 표명한다. 고향의 가치가 자신이 태어난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향 프랑스를 등지고 타히티로 떠난 (사)의 고갱은 자신의 꿈인 상징주의 미술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서양의 도상을 근간으로 하되, 타히티 원주민의 모습을 통해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서양 미술을 재해석했다. 고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은 대안을 찾아 타지로 떠나는 적극적인 자세와 기존의 표현 방식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565자)

## 문항카드 7

###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경영경제계열(수학)/문제 3	
모집요강에 제시한 출제 범위(과목명)	확률과 통계	
출제 범위	과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확률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확률의 덧셈정리, 곱셈정리, 사건의 독립, 조건부확률, 확률분포
예상 소요 시간	30분/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씨는 맑음과 비 두 가지 경우만 있고, 어느 날의 날씨가 맑을 때 그 다음 날에도 맑을 확률은 <math>\frac{2}{3}</math>이고, 어느 날에 비가 올 경우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올 확률은 <math>\frac{5}{6}</math>라고 가정한다. 또한, 그날의 날씨는 바로 전날의 날씨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li> <li>• 서울에서 도시 A까지 가는데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승용차와 고속버스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걸리는 시간을 각각 독립적인 확률변수 <math>X</math>와 <math>Y</math>라고 할 때, <math>X</math>와 <math>Y</math>는 그날의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씨: 맑음                 <table style="margin-left: 40px;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begin{cases} P(X=4) = 0.4 \\ P(X=5) = 0.6 \end{cases}</math>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0 20px;"> <math display="block">\begin{cases} P(Y=4) = 0.5 \\ P(Y=5) = 0.5 \end{cases}</math> </td> <td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middle;">(단위: 시간)</td> </tr> </table> </li> <li>- 날씨: 비                 <table style="margin-left: 40px;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begin{cases} P(X=4) = 0.1 \\ P(X=5) = 0.9 \end{cases}</math>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0 20px;"> <math display="block">\begin{cases} P(Y=4) = 0.4 \\ P(Y=5) = 0.6 \end{cases}</math> </td> <td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middle;">(단위: 시간)</td> </tr> </table> </li> </ul> </li> </ul>	$\begin{cases} P(X=4) = 0.4 \\ P(X=5) = 0.6 \end{cases}$	$\begin{cases} P(Y=4) = 0.5 \\ P(Y=5) = 0.5 \end{cases}$	(단위: 시간)	$\begin{cases} P(X=4) = 0.1 \\ P(X=5) = 0.9 \end{cases}$	$\begin{cases} P(Y=4) = 0.4 \\ P(Y=5) = 0.6 \end{cases}$	(단위: 시간)
$\begin{cases} P(X=4) = 0.4 \\ P(X=5) = 0.6 \end{cases}$	$\begin{cases} P(Y=4) = 0.5 \\ P(Y=5) = 0.5 \end{cases}$	(단위: 시간)				
$\begin{cases} P(X=4) = 0.1 \\ P(X=5) = 0.9 \end{cases}$	$\begin{cases} P(Y=4) = 0.4 \\ P(Y=5) = 0.6 \end{cases}$	(단위: 시간)				

철수와 영희는 서울에서 고향인 도시 A까지 각각 승용차와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로 하였다. 오늘 현재 비가 내리고 있을 때, 철수와 영희가 모레 아침 9시에 출발하여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시오. [20점]

### 3. 출제 의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 및 확률분포의 개념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는 날씨가 교통수단의 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률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각 상황에서의 확률에 대한 비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와 그 확률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	<p>확률과 통계</p> <p>(나) 확률</p> <p>1. 확률의 뜻과 활용</p> <p>(2)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p> <p>(3) 확률의 덧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p>(4) 여사건의 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p>2. 조건부 확률</p> <p>(1) 조건부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p> <p>(2)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p> <p>(3)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p>(다) 통계</p> <p>1. 확률분포</p> <p>(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p>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확률과 통계	정상권 외 7인	(주)금성출판사	2014(2016)	83-93, 95-101, 102-104
	확률과 통계	이준열 외 9인	천재교육	2014(2016)	106-109, 110-115
	확률과 통계	신항균 외 11인	(주)지학사	2014(2016)	71-76, 81-85, 86-90
	확률과 통계	김창동 외 14인	(주)교학사	2014(2016)	85-91, 93-97, 98-103
	확률과 통계	황선욱 외 10인	좋은책 신사고	2014(2016)	82-86
기타					

**5. 문항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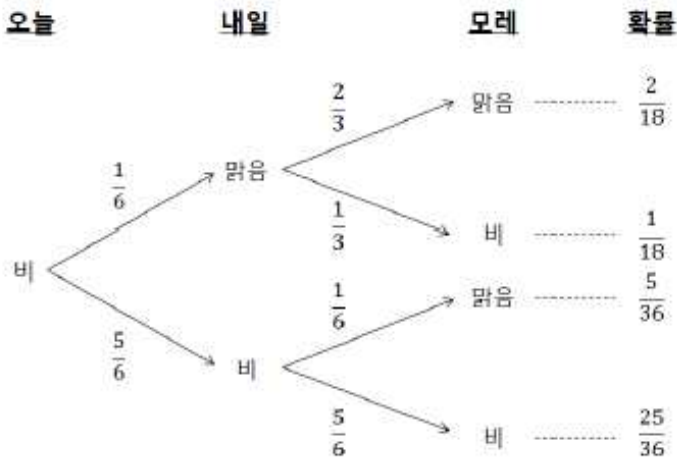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를 기준으로 모레의 날씨가 결정되는 확률구조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확률을 계산한다.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도시 A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확률구조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확률을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을 계산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채점요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률의 곱셈정리와 덧셈정리를 사용하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가?</p> <p>[예시답안] 7번 참조</p> <p>[채점준거]</p> <p>1. 오늘의 날씨를 기준으로 모래의 날씨에 대한 확률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 +5점</p> <p>1. 모래의 날씨가 맑을 경우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하는 경우를 올바르게 찾아내고 그 확률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 +5점</p> <p>1. 모래에 비가 내리는 경우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하는 경우를 올바르게 찾아내고 그 확률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 +5점</p> <p>1. 모래의 날씨에 따라 해당하는 확률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 +5점</p> <p>1. 1에서 모래의 날씨에 대한 확률을 잘못 계산하였어도 그 잘못된 값을 가지고 2,3,4에서 제대로 계산한 경우 추가로 감점하지 않음.</p> <p>※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p> <p>※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p>	20

**7. 예시 답안**

1. 오늘 비가 올 때 모래 날씨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모레 날씨가 맑을 확률은  $\frac{2}{18} + \frac{5}{36} = \frac{9}{36} = \frac{1}{4}$  이고, 비가 올 확률은  $\frac{1}{18} + \frac{25}{36} = \frac{27}{36} = \frac{3}{4}$  이다.

2. 철수와 영희의 도착 시간에 대한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르는 확률은 날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날씨가 맑은 경우

철수의 도착 시간	영희의 도착 시간	확률
1시	1시	$0.4 \times 0.5 = 0.2$
1시	2시	$0.4 \times 0.5 = 0.2$
2시	1시	$0.6 \times 0.5 = 0.3$
2시	2시	$0.6 \times 0.5 = 0.3$

즉, 날씨가 맑은 경우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 오후 2시에 도착할 확률은  $0.2 + 0.3 + 0.3 = 0.8$  이다. 또는 둘 다 1시에 도착하는 경우의 여사건을 생각하면  $1 - 0.2 = 0.8$  이다.

- 비가 내리는 경우

철수의 도착 시간	영희의 도착 시간	확률
1시	1시	$0.1 \times 0.4 = 0.04$
1시	2시	$0.1 \times 0.6 = 0.06$